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및 착용실태

김 순 영 · 추 호 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부교수⁺

Culture Adaptive Attitudes and Donning Practices of Traditional Dress Among Japa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Soon-Young Kim · Ho-Jung Choo⁺

Lecture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7. 7, revised date: 2015. 9. 7, accepted date: 2015. 9. 18)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culture adaptive attitudes and traditional dress donning practices among Japanese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after marrying Korean men.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on Korean-Japanese multicultural families. Participants were 233 married women who emigrated from Japan to Korea currently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Hanbok* acceptance attitudes(HAA) and *Kimono* transmission attitudes(KTA). Both HAA and KTA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thnic identity. 43.3%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y belonged both to Korean and Japanese ethnicity, 30.5% to Korean ethnicity, and 26.2% to Japanese ethnicity. Similar tendency (64.8% to bi-cultural identity, 31.3% to Korean, and 3.9% to Japanese) was found in the ethnic orientation towards their children. Both HAA and KTA had no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nationality, education and income level. Second, 70.4% of women had no experience of wearing *Hanbok*, and 90.1% had no experience of wearing *Kimono*. The women mostly wore *Hanbok* and *Kimono* for social events and family weddings.

Key words: acculturation(문화적응), ethnic identity(민족정체성),
Hanbok acceptance attitudes(한복 수용태도),
Japanese marriage immigrant women(일본 결혼이민 여성),
Kimono transmission attitudes(기모노 전달태도)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Multicultural Human Ecology Center [MHEC])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Ho-Jung Choo, e-mail: chooho@snu.ac.kr

I. 서론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말은 이제 학계에서도 일반 대중에게도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07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1,576,304명으로 집계되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KISMJ], 2014). 이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단기체류 관광객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 '초기진입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Kim et al., 2012), 이와 같은 추세로 외국인이 증가하면 2050년 무렵에는 외국인이 인구의 9.2%를 차지하여(Yoon, 2013), 다문화사회 '확산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im et al., 2012).

체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를 낳고 키움으로써 한국사회의 영구적 구성원이 되므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수는 150,865명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다(KISMJ, 2014). 국적별로는 중국(41.4%)이 가장 많고, 베트남(26.4%), 일본(8.1%), 필리핀(6.9%), 캄보디아(3.1%), 타이(1.8%), 몽골(1.6%), 기타(10.8%) 순으로 집계되었다(KISMJ, 2014).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아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일본 결혼이민자는 국적 순위 3위(8.1%)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은 수가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나 이들의 전통복식생활과 문화적응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복식은 민족정체성의 표시 가운데 하나로서 문화적응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의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문화적응 연구와 다문화가정 의생활 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문화적응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아동가족학과 같은 학문 영역에서는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나 의류학에서의 연구는 그 수가 적은 편이다(Kim, Choo, Son, & Nam, 2014). 다문화가정의 전통복식생활에 대한 연구 역시 그 수가 매우 적

은데, 의복행동과 전통복식태도를 중심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생활실태를 조사한 Son, Nam, & Kweon (2013)의 연구와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착용실태를 분석한 Kim et al.(2014)의 연구 정도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전통복식과 문화적응 관련 연구, 다문화가정 전통복식생활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착용실태를 고찰한 Kim et al.(2014) 연구의 후속연구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일본 결혼이민 여성으로 삼은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Kim et al., 2014)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의 전통복식생활을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연구이다. 그러나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했던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다룸으로써 문화적응과 민족정체성의 관련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국적, 혹은 민족 출신의 부부가 만나서 이루는 가정으로서 다국적, 다민족가정으로도 볼 수 있다. 복식은 민족성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이며(De Vos & Romanucci, 1982; Nash, 1989), 민족정체성의 수립은 개인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m, 2009; Yang, 2009). 따라서 복식은 개인의 사회문화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가 민족정체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복식, 민족정체성, 문화적응의 관련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태도와 착용실태를 중국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et al., 2014) 결과와 비교 논의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전통복식태도와 착용실태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연구와 Chang(2007)의 연구 등에 이용된 문화적응의 개념을 차용했는데, 이들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은 '타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가 균형적, 혹은 불균형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의 개념에는 ‘다문화주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Yoon (2013)은 다문화주의에 대해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 및 사회정책”으로 정의하였다(p. 181).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며(Yoon, 2013), 다문화가족 개념이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2008년 다문화가족과가 설치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되면서부터이다(Baek et al., 2014). 비록 한국 사회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빠른 기간 내에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알려지긴 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사회적 관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문화주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Yoon, 2013). 이러한 상태는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중국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 여성들이 모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 하고 상호의 문화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그러한 욕구의 실현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Kim et al., 2014). 다문화주의 가치의 정착을 위해 한국 사회 전반의 노력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착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일본 다문화가정의 전통복식생활과 한국사회 문화적응의 양상을 이해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통복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전통복식이 다문화 한국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문화적 특수성

2013년 말 기준 국내의 일본 결혼이민자 수는 12,220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여성이 11,037명, 남성이 1,183명으로 집계되었다(KISMJ, 2014). 일본 결혼이민자 수는 2001년 이래 5천~7천명 정도로 지속되다가 2010년 이후 갑자기 급증하여 1만명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Kim, 2011; KISMJ, 2013/2014).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통일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해석에서도 이러한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종교 문화적 특수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일본 결혼이민자 가운데 정확히 몇 명이 통일교 신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07년 경기도의 경우 일본 이주여성 중 86.8%가 통일교인인 것으로 집계된 결과가 있다(Jeong et al., 2007). 또한 통일교 자체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말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 부인은 약 6800여 명이라고 한다(Kim, 2011). Kim(2011)은 이러한 연구결과나 통계로 미루어 볼 때, 한국 남성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이주여성 중 90%에 가까운 인원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84.5%(197명)가 통일교 신자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내 결혼이민 여성 가운데 특히 일본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다른 다문화가정과 구별되는 일본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일교 가정의 경우 결혼이 종교적 행위의 일종이고 남편이 같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이민 여성들의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충돌과 갈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부인들의 문화적응은 통일교의 종교적 교리와 체계적 적응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국적 출신의 부인들에 비해 문화적 충돌과 갈등요소가 조금은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의 교리는 남녀간의 평등을 강조하는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아서 창조된 자녀라는 점에서 신성적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평등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Moon, 2010). 통일교에서는 일본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을 위해 결혼 전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Kim, 2011). 일본인 부인들에게 한

국어교습, 전통문화체험, 요리실습, 역사강좌 등을, 한국인 남편들에게 일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Kim, 2011).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은 비록 종교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다른 국적의 결혼이민 여성들에 비해 문화 충돌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부부간 평등교리, 상호문화교류체험 등은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통일교 가정의 일본 부인들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결혼 이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과 의식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Kim, 2011). 예컨대 자신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다문화가정은 한국 내에서 약자의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 등이다(Kim, 2011). 이러한 의식 측면은 삶의 만족도와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 여성들의 기모노 착용문화와 기모노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모노[着物]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여성복식으로서 에도시대 이전 고소대[小袖]로부터 비롯된 옷이다(Lee, 2011). 기모노는 양복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일본 옷, 즉 와후쿠[和服]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며 와후쿠 중에서 특히 어깨로부터 발목까지 덮는 길이의 긴 옷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Yoon & Lee, 2009). 기모노는 앞트임이 있는 곧은 것의 긴 옷으로서 허리에 오비를 두름으로써 완성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일본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적어졌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기모노에 대한 향수가 커지고 기모노 특유의 심미감 때문에 여성들과 젊은 남성들 사이에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Yoon & Lee, 2009). 오늘날 일본에서 기모노는 여학생의 졸업식이나 성인식, 결혼피로연 등에서 주요하고도 특별한 복식으로 입혀지고 있다

(Yoon & Lee, 2009). 특히 최근에는 여성들이 간편한 기모노의 일종인 유카타를 축제에서 착용하거나 중년 부인들이 일상적으로 기모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일본인들의 기모노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각별해지고 있다(an interview with a Japanese woman(A) in June 30, 2014). 이와 같이 기모노가 일본 여성들에게 의미 있는 전통복식인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의생활에서도 기모노가 모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거나 문화적응에 관여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본 연구는 Berry(1997)의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범주화하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 차원을 두 가지 문화적응태도로 재구성한 Chang(2007)의 연구 모델을 참조하여 진행되었다. Berry는 사람들의 문화간 이동과 접촉이 발생할 때 두 개의 차원 즉, 모국의 문화적 정체감 및 특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지 여부와 새로운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여 문화적응의 결과를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으로 분류하였다(Berry 1997; Chung & Yang, 2004). Chang(2007)은 Berry의 두 가지 차원을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응태도로 재구성하여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를 정의하였다. 다문화 수용태도는 한국 남편이 외국인 아내 국가의 문화를 아는 정도 및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자문화 전달태도는 한국 남편이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 아내에게 알려주는 태도라 하였다.

Park(2011)은 Chang(2007)의 문화적응태도 개념을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 즉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적용하여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를 분석하였고, Kwon & Im(2013)의 연구에서도 Chang(2007)의 문화적응태도 개념이 활용되었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자문화 전달태도는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문화 전달태도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Kwon & Im, 2013).

Kim et al.(2014)은 Chang(2007), Park(2011),

Kwon & Im(2013)의 연구 등에 활용된 문화적응태도의 두 차원을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에 적용하여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정의하였다.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는 상이한 전통복식 문화를 가진 부부, 혹은 가족 상호간에 서로의 전통복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한복 수용태도'와 '치과오 전달태도'로 구성되었다(Kim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4)의 연구에 이용된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정의하고자 한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는 '한복 수용태도'와 '기모노 전달태도'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한복 수용태도는 일본인 부인이 한국 전통복식인 한복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이며, 기모노 전달태도는 타인에게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를 알려서 적응하게 하려는 노력 및 태도를 말한다.

3. 복식, 민족정체성, 문화적응

복식은 민족성, 또는 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De Vos & Romanucci(1982)는 민족성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는데, 첫째, 사회구조적 수준,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 셋째, 정체성의 주관적 경험, 넷째, 태도의 고정된 패턴과 표현적 감정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이들 4개의 유형 가운데, 복식은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De Vos & Romanucci, 1982).

Nash(1989)의 연구에 의하면, 민족성을 구성하는 것은 신체, 언어, 공유된 역사와 기원, 종교와 국적 등이라 하였다. Nash(1989)는 민족성을 드러내는 표시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경계표시 삼요소(a trinity of boundary markers)', 다른 하나는 '이차적·표면적 지표들(secondary, surface pointers)'이라 명명하였다. '경계표시 삼요소'는 민족 집단을 구별하는 기본 구조가 되는 것으로서 친족, 친교, 종교적 신앙이 이에 해당한다. '이차적·표면적 지표들'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하고 타인에 의해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되게 만드는 표시들로서

복식, 언어, 문화적으로 표시되는 신체적 특징들이 이에 해당한다(Nash, 1989).

De Vos & Romanucci(1982)와 Nash(1989)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복식은 민족 집단을 구별해주는 이차적·표면적 지표이며, 민족성을 태도와 감정의 수준에서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복식은 민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다문화사회에서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많다(Yang, 2009). 청소년 발달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탐색하고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아지며 인종적 정체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민족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심리적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Shim, 2009). 또한 인종적 정체감이 분명한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고 타인과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학교에서도 잘 지낸다고 한다(Shim, 2009).

이와 같이 민족정체성이 사회적응에 중요하게 기능함이 보고되면서 최근의 다문화 연구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이주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Cho & Kim, 2010; Hyun, 2012). 이러한 사회적 지향 속에서 민족성을 드러내는 문화 요소의 하나인 복식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도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민족정체성이 긴밀한 연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족정체성의 수립이 사회적응에 관여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현재 다문화 한국사회에서는 민족정체성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사회는 잦은 외침과 일본 식민지 경험 등으로 인하여 강한 민족주의를 형성하게 되었고(Jeong, 2009), 한국인들은 혈통, 언어, 역사, 문화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단일민족 개념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Seol, 2014). 한국에서는 '혈통의 종족집단'의 성격자격인 '민족' 개념과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성격자격인 '국민'

이 사실상 동의어처럼 사용되어 왔다(Seol, 2014). 그러나 결혼 이민자 증가와 그들 가정의 2세 자녀들의 출산은 한국인의 국민과 민족 개념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한국인의 단일민족 의식도 도전받게 되었다(Seol, 2014).

다문화와 민족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한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그대로 두고 다문화적 가치관과 상충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인데, Jeong(2009)의 연구와 Yang(2009)의 연구 등이 이러한 입장을 택하고 있다. Jeong(2009)은 다문화 시대 민족정체성 교육의 방향 수립에 있어서 다문화적 가치관과 민족정체성 확립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두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eong(2009)은 이를 '균형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보았다. 즉,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되 다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고유함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다(Jeong, 2009). 그러나 다문화적 가치관과 민족정체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민족정체성 유지와 타민족정체성 유지를 어떻게 조정해 내는가 하는 실제 적용의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였다(Jeong, 2009). 또한 Yang(2009)은 한민족 정체성이 두 가지 하위요인 즉, '단일민족정체성'과 '문화민족정체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한민족 정체성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자 시도했는데,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민족 정체성 중 '문화민족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밝혔다(Yang, 2009). 따라서 한민족 정체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민족정체성의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향의 일환으로 '문화민족정체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Yang, 2009).

둘째는 한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확장시켜 보는 관점으로, 스스로 한민족이라 생각하는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포용하자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용주의'라 명명하고자 한다. 포용주의 입장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 연구로 Seol(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eol(2014)은 결혼이민자들이 스스

로의 문화적 주체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들이 원할 경우 한국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민족' 개념을 넓히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포용주의 입장에는 이주민 스스로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생각과 의지에 대한 존중감이 반영되어 있다. 포용주의는 이주민들 스스로 한민족이라 여길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이며 원치 않는 '타자 만들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족정체성의 선택은 이주민의 출신국가나 이주배경, 동화지의 수준 등에 따라서 다른 패턴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본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본인 스스로 어떤 민족에 속한다고 여기는지와 자녀를 어떤 민족 지향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민족정체성 인식 상태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민족정체성과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관련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 여성의 민족정체성 인식 및 지향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적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통복식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밝힌다.

1-1.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수준을 살펴본다.

1-2.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민족정체성의 관계를 밝힌다.

1-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차이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착용 실태를 밝힌다.

2-1.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착용 빈도를 살펴본다.

2-2. 상황에 따른 전통복식 착용경험의 차이를 살펴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일본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민족정체성, 민족소속감, 자녀에 대한 민족지향성, 전통복식 착용경험, 인구통계적 특성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Chang (2007), Hong(2013), Kim et al.(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전통복식 지식, 심미성, 외모관심에 관련된 문항 각각 2개씩 총 6개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민족정체성은 Phinney(1992)의 민족정체성 척도(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일본 결혼이민 여성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민족정체성 척도는 '나는 내가 일본 사람인 것이 행복하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긍정·소속감(affirmation & belonging) 5개 문항,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 일본에 대하여 더 잘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민족정체성 성취(ethnic identity achievement) 문항 5개, '나는 대부분 일본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 민족성 태도(ethnic behaviors) 문항 2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이 일본인 또는 한국인 둘 중 어디에 더 가깝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족/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문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9점 리커트 척도(1점: 한국인에 가깝다, 5점: 한국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기도 하다, 9점: 일본인에 가깝다)로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자녀를 어디에 더 가깝게 키우고 싶은지를 묻는 민족 지향성 문항도 구성되었다.

전통복식 착용경험은 연간 전통복식 착용횟수를

묻는 문항과 전통복식 착용상황을 묻는 문항을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는데, 착용상황은 복수 응답하게 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 국적, 종교,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 거주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선다형 및 자유기술형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일본출신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일본 결혼이민 여성은 한국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서 현재 한국에서 학령기의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이들로 한정하였다.

2014년 4월에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2014년 6~7월에 예비조사 및 설문지 수정이 이루어졌다. 본조사는 2014년 8~9월에 진행되었으며 편의 표집과 스노우볼 표집법이 이용되었다. 연구보조원이 일본출신 결혼이민여성을 직접 대면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239부 가운데 부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233부가 분석 자료로 통계 처리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15.0%(35명), 40대가 57.1%(133명), 50대가 27.9%(65명)로 40대 부인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국적은 한국국적 보유자가 6.0%(14명), 일본국적 보유자가 94.0%(219명)로 응답자의 90% 이상이 일본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종교는 통일교 84.5%(197명), 무교 8.6%(20명), 불교 3.1%(7명), 기독교 0.4%(1명), 기타 3.4%(8명)로 나타나 통일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0.4%(1명), 고졸 37.8%(88명), 대졸이상 61.8%(144명)로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34.8%(81명), 직업을 가진 여성이 65.2%(152명)였다. 직업을 가진 여성 가운데 52%(78명)는 파트타임, 48%(72명)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족 총수입은 200~299만원이 37.8%(8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00~399만원 22.7%(53명), 100~199만원 20.6%(48명)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은 15년 이상~20년 미만 45.9%(10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년 이상~15년 미만 29.6%(69명), 20년 이상~24년 미만 12.0%(28명)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대응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 등의 통계기법이 이용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1)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수준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측정문항, 신뢰도, 평균은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문화적응태도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복 수용태도(HAA, 평균 3.585)가 기모노 전달태도(KTA, 평균 3.47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서는 한복 수용태도보다 치파오 전달태도가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인 부인들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는 중국인 부인들에 비해 타문화 수용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의 대부분이 통일교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서 비롯된 종교 문화적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부간 평등과 상호문화교류를 강조하는 종교 교육에 의해 일본 부인들의 이주국 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문화에 대한 우월감의 상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즉, 중국인 부인들의 자문화 전달의지나 자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일본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한복 수용태도와 기모노 전달태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복 수용태도와 기모노 전달태도는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r=0.368, p=.000$)를 나타내었다<Table 4>. 즉 한복 수용태도와 기모노 전달태도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에서와 같은 결과로서(Kim et al., 2014), 자문화 복식에 대한 관심과 타문화 복식에 대한 관심이 서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Table 1> Culture adaptive attitudes of traditional dress among Japa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Culture Adaptive Attitudes	Item	Cronbach's α	M	SD	t	p
<i>Hanbok</i> Acceptance Attitudes (HAA)	I am well aware of <i>Hanbok</i> .	.769	3.585	.564	2.247	.026*
	I want to learn <i>Hanbok</i> if I have a chance.					
	I think that <i>Hanbok</i> is beautiful.					
	I think that <i>Hanbok</i> is elegant and graceful.					
	I think that <i>Hanbok</i> makes wearer's appearance beautiful.					
I think that <i>Hanbok</i> makes wearer's body beautiful.						
<i>Kimono</i> Transmission Attitudes (KTA)	I tell others that <i>Kimono</i> is Japanese traditional dress.	.890	3.471	.781	2.247	.026*
	I want to teach <i>Kimono</i> to others if I have a chance.					
	I tell others that <i>Kimono</i> is beautiful.					
	I tell others that <i>Kimono</i> is elegant and graceful.					
	I tell others that <i>Kimono</i> makes wearer's appearance beautiful.					
I tell others that <i>Kimono</i> makes wearer's body beautiful.						

* $p < .05$

2)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민족정체성

일본 결혼이민여성의 민족정체성 측정문항, 신뢰도, 평균은 <Table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민족정체성 평균은 3.212로 일본민족으로서의 긍정·소속감, 성취, 태도 등이 그다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의 민족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민족정체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복 수용태도(HAA)와 기모노 전달태도(KTA) 모두 민족정체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수용태도와 민족정체성은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r=0.160, p=.014$)를, 기모노 전달태도와 민족정체성은 유의확률 0.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r=0.372, p=.000$)를 나타내었다. 즉, 개인의 민족정체성이 타문화 전통복식 수용태도 및 자문화 전통복식 전달태도 모두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정체성은 기모노 전달태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족정체성이 한복 수용태도와도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비록 통계적 인과관계 검증을 시

행하지는 않았으나 두 개념간 정적 관련성이 드러남으로써 민족정체성 수립이 결혼이민 여성들의 생활 문화적응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민족정체성과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의 정적 상관 결과를 볼 때, 모국과 이주국 양국 모두의 전통복식 교육은 민족정체성 수립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통복식 교육을 통해 이주민의 생활문화적응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기도 하고 일본인이기도 하다(5점)'고 응답한 여성이 43.3%(10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국인에 가깝다(1~4점)'고 응답한 여성 30.5%(71명), '일본인에 가깝다(6~9점)'고 응답한 여성 26.2%(6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일본인으로서 이중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일본인에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한국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 정도 더 많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압도적 다수(94.0%)가 실제로는 일본국적 보유자임을 감안해 볼 때에도 이는 매우 특징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Seoul(2014)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실제의 국적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69.5%,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4.6%로 나타난 결과와

<Table 2> Ethnic identity of Japa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tem	Cronbach's α	Mean
Ethnic Identity	I am happy that I am a Japanese. I have a strong sense of belonging to the Japanese people. I have a lot of pride in Japan and its accomplishments. I feel a strong attachment towards Japan. I feel good about Japan I have spent time trying to find out more about Japanese history, traditions, and customs. I have a clear sense that I am a Japanese and what it means for me. I think a lot about how my life will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I am a Japanese. I understand pretty well what Japanese ethnic group membership means to me. In other to learn more about Japan, I have often talked to other people about Japan. I am active in organization or social groups that include mostly Japanese people. I participate in Japanese cultural practices, such as special food, music, or customs.	.837	3.212

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국내에 정착하여 다문화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결혼이민자들의 마음에 자신의 실제 국적이나 출신 민족과 관계없이 한국인, 한민족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족에 대한 '포용주의' 관점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한민족의 범위와 민족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녀에 대한 민족 지향성을 분석한 결과, '양쪽에 모두 가깝게 키우고 싶다(5점)'고 응답한 여성이 64.8%(15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국인에 가깝게 키우고 싶다(1~4점)'고 응답한 여성 31.3%(73명), '일본인에 가깝게 키우고 싶다(6~9점)'고 응답한 여성 3.9%(9명) 순으로 나타났다. 약 65%의 부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중민족성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고 한 경우도 30%가 넘어 둘을 합하면 96.1%로 거의 대부분의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이 자녀들을 이중민족성 또는 한국인 지향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민족/국가 소속감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서, 비록 스스로 일본인이라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이중문화를 지니거나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Hyun(2012)의 연구에서 한국문화 정체성과 모국문화 정체성으로 구성된 이중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은 자기긍정성을 도우며 결혼의 안정에 기여함이 밝혀졌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를 연구한 Cho & Kim(2010)도 이중문화 정체성이 사회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민자들이 각자의 원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원문화와 동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중문화 정체성은 생활안정 및 문화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 여성들의 이중민족성, 또는 이중문화 정체성 지향 욕구가 더욱 존중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중민족성, 또는 이중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통복식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족 또는 문화에 대한 이중정체성은 모국과 이주국의 민족성이나 문화자산을 동등한 가치로 여기고 개인이 양쪽의 성격과 문화자산을 조화롭게 내면화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이는 곧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모국과 이주국 양국의 전통복식문화를 상호 교육하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이중민족성, 또는 이중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만일 이민자 스스로가 한국인 정체성을 지향한다면 그 의지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복식교육 및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한국인 정체성을 지향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가 한국국적 취득여부, 교육정도, 소득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인구통계적 특성과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한국문화적응에 영향력 있는 변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서울·경기·충청 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을 고찰한 Kim(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국적을 보유할수록 한국문화 적응수준이 더 높아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Kwon & Im(2013)의 연구에서도 한국국적 취득이 중요한 요건으로서 한국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한복 수용태도 및 기모노 전달태도 모두)에 차이가 없었다.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를 고찰한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국적 취득여부가 한복 수용태도와는 관련이 없

었고 치파오 전달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Kim et al.(2014) 연구 결과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서 한국국적 보유 비율이 현저히 다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이상(59.5%)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6%만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인 부인들은 대부분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국적 취득여부에 따른 태도 차이에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국적 취득여부와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정도와 소득수준은 한국문화 수용태도 및 자문화 전달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Kwon & Im, 2013). 본 연구에서도 학력, 소득수준은 한복 수용태도 및 기모노 전달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에 관한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태도 모두 교육정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역시 조사대상자의 학력분포가 비교적 균일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 61.7%, 고졸 37.8%로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었다. 교육정도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로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와의 관련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소득수준과 관련해서는,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복 수용태도와 치파오 전달태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태도 모두 소득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부인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가 달랐으나, 일본인 부인들의 경우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가 소득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 여성의 일반적 문화적응태도 및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된 여러 가지 인구통계적 변인들이 본 연구에서는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이 안정된 집단의수록 전통문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일본인 부인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에는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 여성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은 대부분 일본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학력분포도 고학력자 위주로 균일한 편이었으며 통일교를 종교로 가진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차이를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에서 균일성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남녀평등, 상호문화 존중,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강조하는 통일교의 종교 문화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종교적 특성이 조사대상자의 균일성을 더욱 강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내 일본 다문화가정의 문화는 다른 국적 출신의 다문화가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차이를 분석한 Jun & Song(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자녀는 타국적에 비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고, 일본 이외의 타국적 자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가정생활에서의 화목 정도, 부모와의 애착 정도, 부모에 대한 자긍심과 긍정적 인식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일본인 어머니의 교육 열의와 높은 학력수준이 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을 수월하게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Jun & Song, 2011).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출신국가, 교육정도와 소득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사회문화적응에 대한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를 결혼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거나

<Table 3> Differences in culture adaptive attitudes according to the acquirement of Korean citizenship

	Citizenship	N	M	SD	t	p
HAA	Korean	14	3.381	.652	-1.399	.163
	Japanese	219	3.598	.557		
KTA	Korean	14	3.524	.650	.262	.794
	Japanese	219	3.467	.790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major factors

	Education	Income	Ethnic Identity	HAA	KTA
Education	1				
Income	.292***	1			
Ethnic Identity	.102	.001	1		
HAA	.020	.064	.160*	1	
KTA	.085	-.014	.372***	.368***	1

* $p < .05$, *** $p < .001$

다른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많은 비교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한 일괄적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출신국가, 교육정도와 소득수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결혼이민자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 전통복식 착용현황

1) 한복과 기모노 착용빈도

전통복식 착용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한복의 경우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0.4%(16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 1~2회 착용 24.9%(58명), 연 3~4회 착용 3.9%(9명), 연 5~10회 착용 0.9%(2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복을 전혀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더라도 연간 1~2회 정도였다. Kim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중국인 부인들의 경우 한복을 1~2회 착용한다는 응답자(54.0%)가 가장 많았던 것과는 달리 일본인 부인들은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경

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부인들에 비해 한복을 덜 착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모노의 경우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절대적 다수인 90.1%(21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 1~2회 착용 5.2%(12명), 연 3~4회 착용 1.3%(3명), 연 5~10회 착용 2.1%(5명), 월 1회 착용 0.9%(2명), 주 2~3회 착용 0.4%(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복에 비해 착용하는 빈도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 중국인 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의 모국 전통복식 착용 기회나 경험이 이주국 전통복식에 비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기모노 착용행동은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적·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더욱 제한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예비조사에서 일본인 부인 B씨는 한국에서 기모노를 입으면 아직 한일 문제 같은 것이 있으니 입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고(an interview with a Japanese woman(B), June 27, 2014), 또 다른 일본인 부인 C씨는 한국에서 기모노를 입으면 누구한테 들을 맞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an interview

with a Japanese woman(C), July 15, 2014). 이처럼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한국에서 기모노를 착용하는 일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Dressing frequency of Hanbok and Kimono

Characteristics	Frequency (%)	
	Hanbok	Kimono
None	164 (70.4)	210 (90.1)
1~2times 1year	58 (24.9)	12 (5.2)
3~4times 1year	9 (3.9)	3 (1.3)
5~10times 1year	2 (.9)	5 (2.1)
1time 1month		2 (.9)
2~3times 1week		1 (.4)
Total	233 (100.0)	

그런데 이러한 착용 행동의 조심스러움과는 별도로,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본인 부인들의 경우 기모노를 월 1회, 또는 주 2~3회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입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한국인의 한복 착용 빈도조사나 중국 결혼이민 여성의 치과오 착용 빈도조사에서는 전통복식을 월 1회, 또는 주 2~3회 착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없었다(Son et al., 2013; Kim et al., 2014). 한국인 여성과 중국인 여성의 경우 일상적으로 전통복식을 즐겨 입는 애호가들이 거의 없는데 반해, 일본인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기모노를 즐겨 입는 애호가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한복과 기모노 착용상황

상황에 따른 한복과 기모노 착용 경험을 복수 응답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한복과 기모노 모두 사회적 행사(한복 30.4%, 기모노 36.4%)에서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족과 친지 결혼식(한복 27.6%, 기모노 30.5%)에서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한복의 경우 본인 결혼식(20.5%), 명절(14.3%), 기타(6.7%), 근무(0.2%)·외출(0.2%) 순이었으며, 기모노의 경우 기타(11.8%), 명절(10.9%), 본인 결혼식(7.6%), 외출(1.7%), 근무

(1.1%) 순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ressing frequency according to occasions

Occasions	Frequency (%)	
	Hanbok	Kimono
Wedding	89 (20.5)	27 (7.6)
Family weddings	120 (27.6)	109 (30.5)
Holiday	62 (14.3)	39 (10.9)
Social events	132 (30.4)	130 (36.4)
Work	1 (0.2)	4 (1.1)
Going out	1 (0.2)	6 (1.7)
Others	29 (6.7)	42 (11.8)
Total*	434 (100.0)	357 (100.0)

* Total of multiple response

기모노를 사회적 행사에서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경향은 예비조사에서도 언급 된 바 있었다. 일본인 부인 C씨는 학교 행사시에 일본문화원에서 대여해주는 기모노를 학생들과 함께 착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an interview with a Japanese woman C, July 15, 2014). 한복과 기모노 착용 상황은 1, 2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3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한복은 본인 결혼식에서 입는 반면, 기모노는 기타 상황에서 입는다고 했다. 선다형 문항에 없는 기타 상황을 추정해 보면, 일본 여성의 경우 일본축제 때나 다도예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 평상복으로 입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모노를 입는 상황이 한복과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인 부인들은 본인 결혼식에서 상당수가 한복 착용 경험(20.5%)이 있는 반면, 기모노 착용 경험(7.6%)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긴장관계로 인해 기모노 착용을 조심하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복에 비해 기모노의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한 결과로 해석된다. 성인식용 기모노를 한 벌 맞추는데 한국 돈으로 약 천만원 정도 드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의 기모노 준비를 위해 부모들이 미리 저축하기도 한다고 한다(an interview with a Japanese woman C, July 15, 2014). 중

국 결혼이민 여성 연구에서도 중국인 부인들이 본인 결혼식과 명절 및 가족행사에서 치파오보다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4).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혼이민 여성들의 모국 전통복식 착용경험이 이주국 전통복식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수준을 밝히고 전통복식 착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전통복식이 문화적응에 관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문화적응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한복 수용태도가 기모노 전달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 다문화가정의 종교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중국인에 비해 타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복 수용태도와 기모노 전달태도는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복 수용태도와 기모노 전달태도 모두 민족정체성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정체성 수립이 전통복식을 통한 문화적응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들은 스스로의 민족성에 대해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다음으로 많았다. 자녀에 대한 민족 지향성도 이중민족성 지향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지향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유국적, 교육정도, 종교 등에서 균일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착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복과 기모노 모두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연 1~2회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두 번째로 많았다. 두 복식 모두 잘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착용빈도를 보면 한복보다 기모노의 경우에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본 결혼이민 여성의 기모노 착용행동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적·정치적 긴장관계로 인해 더욱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황에 따른 한복과 기모노 착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한복과 기모노 모두 사회적 행사에 가장 많이 착용했으며, 다음으로는 가족과 친지 결혼식에서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 여성의 전통복식 문화적응태도가 민족정체성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모국과 이주국 양국 모두의 전통복식 교육이 민족정체성 수립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전통복식 교육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주민의 문화적응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문화 한국사회에서 모국과 이주국 양국 전통복식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한복 교육과 다문화 전통복식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민족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태도는 출신국가, 이민동기, 문화적 배경, 인구통계적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집단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지 말고 출신국가나 문화적 배경, 인구통계적 특성 등에 따라 집단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문화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이민 여성들의 모국 전통복식 착용경험은 이주국 전통복식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인 경향을 드러내었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모국 전통복식 착용 기회 및 소개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는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모국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모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줌으로써 전통복식을 소통의 매개체로 삼아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aek, S. D., Lee, J. H., Kim, H. K., Seo, J. Y., Jeong, Y. K., Park, J. O., ... Kim, M. J. (2014).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Daegu, Republic of Korea: Jeongrimsa.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Chang, O. J. (2007). *A study on marital-lif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Korean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ho, M. K., & Kim, Y.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s in Korea. *Daehanjeongchihakhoebo*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89.
- Chung, J. K., & Yang, K. M. (2004). Recent developments in acculturation theories. *Korean Journal Psychology, 23*(1), 101-136.
- De Vos, G., & Romanucci-Ross, L. (1982). *Ethnic identity: cultural continuities and change*. Chicago, U. 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ng, S. N. (2013).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interest in appearance and body satisfaction of Korean women and 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Hyun, K. J. (2012). Bicultural identity and marital well-be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self-positivity derived from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2), 241-271.
- Jeong, K. S., Kim, Y. H., Park, K. E., Lee, E. A., Park, J. H., Lee, S. A., & Lee, J. H. (2007). *Survey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family in Gyeonggido and policy support plan*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Suwon, Republic of Korea: Gyeonggido Family & Women Development Institute.
- Jeong, S. M. (2009). A study on the education of national identity in multi-cultural age: focused on the revision of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 2007. *Yulliyeongu* [윤리연구], *75*, 131-152.
- Jun, K. S., & Song, M. K. (2011). A research on the differences of adjustment level by multicultural children's nationality. *Cheongsonyeonhakyeongu* [청소년학연구], *18*(11), 305-330.
- Kim, J. K., Kim, S. B., Park, H. I., Lee, S. C., Son, M. J., & An, S. H. (2012). Multicultural policies: from assimilation to harmony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 *CEO information, 853*, 1-19.
- Kim, K. J. (2011). Thoughts on multicultural family issues in a new religion: focusing on Japanese immigrant wives of the Unification Church. *Sinjonggyoyeongu* [신종교연구], *24*, 327-361.
- Kim, S. Y., Choo, H. J., Son, J. A., & Nam, Y. J. (2014). Culture adaptive attitudes and donning practices of traditional dress among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5), 154-167.
- Kim, Y. S. (2013).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4), 5-38.
-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3/2014). *Korean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Gwacheon, Republic of Korea: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Kwon, B. S., & Im, B. R. (2013). A study of effective factor on culture adaptive attitudes of marriage immigrants women in Daegu and Gyeongbuk. *Minjokyeongu* [민족연구], *53*, 130-151.
- Lee, K. H. (2011). Transition of Japanese Kimono desig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3*(1), 32-43.
- Moon, S. Y. (2010). The understanding of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Church and its contemporary meanings. *Sinjonggyoyeongu* [신종교연구], *22*, 85-105.
- Nash, M. (1989). *The cauldron of ethnicity in the modern world*. Chicago, U. S.: University of Chicago.
- Park, M. H. (2011).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ttitudes and communication affecting couple adjustment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Republic of Korea.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 Seol, D. H. (2014).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s self identification of Koreaness with regard to ethnic and civic nationhood in South Korea. *Gyeongjehwasahoe* [경제와 사회], *103*, 278-312.
- Shim, W. Y. (2009). Racial identity and psychological attitudes of multicultura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4), 27-47.
- Son, J. A., Nam, Y. J., & Kweon, J. H. (2013). Study on clothing life of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 on clothing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dres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6), 127-139.
- Yang, K. M. (2009).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identity upon the multicultural receptiveness of

-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4), 387-421.
- Yoon, I. J.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in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Paju: Republic of Korea: Hanwool Academy.
- Yoon, Y. N., & Lee, M. J. (2009). Study on the Japanese female students' dress for commencement. *Hanbokmunhwa* [한복문화], 12(1), 117-126.